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S the 1 요리학원
여름大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반 수강생모집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384-1984

제1779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7월 5일 (음력 5월 21일) 목요일

5년간 40% 올랐는데 또 임금 올리라니…

기아차 '황당 파업'

지난달 '반 FTA'를 외치며 정치 파업을 벌였던 기아차 노조가 지난 3일 이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정상조업을 병행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1천200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4분기 73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40% 가까이 임금을 올려 비판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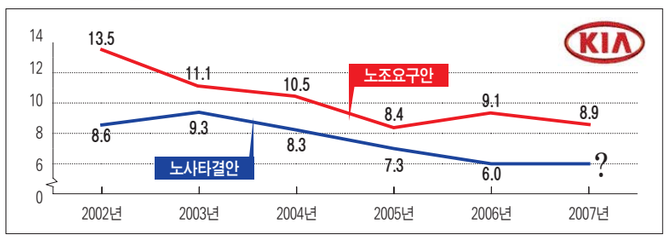
◇6월에 이어 7월에도 파업=3일 주·야 4시간씩 파업을 실시한 기아차 노조는 협상과 조업을 병행키로 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4~5일 정상조업을 한 뒤 6일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6월 '정치파업'에 이어 이달에도 임금파업에 들어가 17년 연속파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임금협상 결렬로 6일에도 파업이 진행될 경우 6월 부분파업까지 합쳐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손실은 생산차질대수 2천900여대에 손실액 46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손실액도 110억원에 달한다.

◇5년간 임금 인상 40%에 육박=기아차는 환율하락과 노조파업, 판매부진 등으로 지난해 1천2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올 1·4분기에도 737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회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노조는 2002~2006년 5년 동안 기본급 대비 39.5%까지 임금을 끌어올렸다. 정액·정률개념을 무시하고 단순수치로만 계산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무려 39.5%에 달한다.

■기아차 임금인상률 추이 (기본급 대비, 단위:%)



노조는 올해에도 기본급 대비 8.9%인 12만8천805원 인상과 생계비 부족분 통상임금의 200%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생계비 부족분의 경우 '사실상의 성과급'이어서 사측을 당황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생계비 부족을 내세우며 통상임금의 20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아차의 1인 평균 급여액은 5천600만원으로,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삼성물산·대한항공·대우조선해양 등을 물리치고 8위를 차지했다.

◇수익구조 악재로 작용=임금 등 제조원가의 상승은 제품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관계자는 "제조원가가 오르면 제품 판매가가 상승하는 게 경제원리"라며 "그러나 고가인 자동차의 경우 경쟁사나 고객들의 수요패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제조원가가 오르더라도 무작정 제품가격을 올릴 수 없어 제조원가 상승→판매감소→수익구조 악화→투자부진 등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수익구조 악화는 협력업체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아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핑계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CR·Cost Reduction)'를 강요하게 되고, 결국 납품 품질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한 경제계 인사는 "기아차가 회사 경쟁력을 높여 흑자구조로 전환하려면 노조가 17년 파업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평창! 꿈★의 날이 밝았다 4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119차 IOC총회에서 있을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각 후보도시의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3일 과테말라시티 국립극장에서 열린 119차 IOC 총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벨라데레스 과테말라 올림픽위원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항→항만공사 조기 전환 안된다"

해수부, 2009년 추진…지원 끊겨 침체 가속 우려

정부가 광양항을 오는 2009년께 항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항만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광양항 조기 활성화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양항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공사 수입만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 물동량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출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올 들어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인천항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지역항으로 전락할 위기마저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항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항만공사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춰 현재의 정부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와 광양항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을 공사로 전환한 부산(2004년), 인천(2006년), 울산항(2007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09년 항만공사로의 체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을 항만공사로 전환할 경우 당장 정부출연금 지원이 끊겨 광양항의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려 1조1천억원에 이르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항만공사 전환과 함께 정부가 일정부분 인수한다해도 2006년 광양항 운영수입이 41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항만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 도입이 어렵게 돼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社告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매주 금요일자 종교·복지면에 소개되고 있는 '종교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의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

김유수 목사 김정용 신부 도일 스님 이덕윤 교무

◇김유수 목사(광주 월광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 ▲미국 하워드대 대학원 박사 ▲예수전도산 이사 ▲광주기독병원 이사 ▲국제사랑재단 공동회장

◇김정용 신부(광주가톨릭대학 교수)
▲대건신학대학(현 광주가톨릭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 신학박사 ▲쌍암동성당 주임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장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 교수사)
▲1975년 출가 ▲통도사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영국 런던대학 및 태국 마하출라롱콘대학 수학

◇이덕윤 교무(원불교 소촌교당 담임)
▲1981년 출가 ▲영산원불교대학교 졸업 ▲마산교당 ▲정토회 교당 ▲중앙총부 총무부

光州日報社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오쿠이 엔위저·신정아 교수

내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어 갈 내·외국인 공동예술감독이 선임됐다. 〈관련기사 및 인터뷰 15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이사장 한갑수)는 4일 오전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제98차 이사회를 열고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신정아(35) 동국대 미술사학과 조교수와 오쿠이 엔위저(45·Okui Enwezor)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대 학장을 선임했다. 내외국인 공동예술감독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정아 예술감독은 미 캔사스 주립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미술학 박사를 받은 뒤 금호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를 거쳐 동국대 조교수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오쿠이 엔위저 예술감독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스페인 세비야 비엔날레, 요하네스 비엔날레, 카셀 다큐멘타 총감독을 역임했다.

신 감독은 오는 9일부터 재단에서 근무하며, 엔위저 감독은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